회원 이어말하기

서면 쓰지 않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서면을 씁니다

- 조애진 회원 인터뷰

정나위 회원

같은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더라도 누군가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누군가는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된다. 조애진 변호사는 부산 초읍의 한 카페에 놓인 3단 와인냉장고 앞에서 원·하청으로 나뉜 노동의 현실과 아래로 집중되는 위험을 이야기했다. 산재소송을 하며 법과 제도의 변화를 고민하고, 부산에서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연구소와 함께 해 온 그를 만났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간단하게 함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조애진입니다. 부산참여연대 시민자치본부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회원,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조례안 검토에 법률적 의견을 보태고, 지방자치의 날 좋은 정책 선정 심사에도 참여합니다. 라이프는 부산에 기반을 둔 동물보호단체로, 학대·유기 동물을 구조해 치료하고 입양을 연결하는 한편 불법 번식장 대응과 동물보호법 개정 활동을 합니다. 저는 구조 동물의 소유권이나 번식장 고발 같은 법률문제를 자문하고 입법 활동에도 의견을 보탭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다 변호사가 되셨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입사 시험에서 법학을 선택해 자연스럽게 송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자신이 원고나 피고가 되는 소송을 직원이 소송수행자나 법률상 대리인이 되어 직접 수행하는데, 저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했고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집행 관련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다만 조직생활이 저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생활도, 잦은 인사 발령도 힘들었고, 경영평가 지표인 패소율 관리를 위해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까지 항소해야 하는 일도 제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휴직 기간 3년을 빼면 공단에서 11년을 일했고, 2016년부터 만 1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느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자처럼 일하는 시간의 정함이 없고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노보연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2016년에 부산지하철 기관사 한 분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건을 맡으면서였습니다. 부산에서 기관사의 자살을 산재로 제기한 첫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 이숙견 동지와 부산지하철노조 간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간·교대근무로 생긴 불면증이 우울증으로 깊어진 사례였는데, 면허에 문제가 생길까봐 정신과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분이라 입증이 쉽지 않았고 승소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소송에서는 우리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노동조합과 사건에 집중한 노조 간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그 뒤로도 노동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한노보연과 함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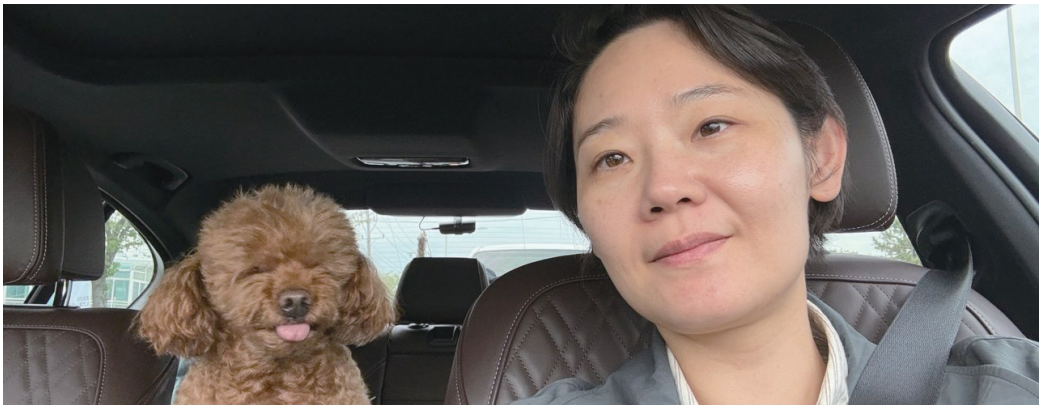
제가 맡는 사건의 절반 정도는 산재 사건입니다. 직력과 상병이 확실한 사건은 저에게까지 올 일이 없고, 공단 재심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거나 정황증거조차 없는 사건처럼 해도 해도 안 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1·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나 2심에서 뒤집은 사건들이 기억에 남고, 무엇보다도 기쁘다기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듭니다.

유족 사건 가운데서는 자살 사건이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프로젝트성 건설 현장에서 비정규직 현장소장으로 일하다 기숙사에서 사망한 분의 사건도 특별히 기억에 남아요. 행정심판까지 거친 유족이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였는데, 제가 선임비를 안 주셔도 되니 끝까지 가보자고 제안했고 근 3년 만에 소송으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산재급여가 나오면 유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분은 지금도 명절마다 제게 꼭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가장 절실하다고 느끼는 법제도 개선사항이 있을까요.

요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상당인과관계의 규범적 판단 기준을 산재보험법에 명문화하여, 공단의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단계부터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건설노동자의 직력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현장을 옮겨 다닌 노동자라도 고용보험 이력이나 근로 내역이 없는 기간이 있게 마련인데,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보호자 직업이 건설업으로 기재되어



▲ 조애진 회원과 어머님의 반려견.

있거나 배우자가 직업이 없었거나 거주지의 이동 경로가 현장과 겹치는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그 기간에도 건설 일을 계속했을 거로 추정하는 것이 규범적 판단입니다. 통상 형틀목공은 15년 이상의 직력이 확인되면 무릎 관절증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는데, 판정위원회는 명확한 증거로 확인되는 12년만 보고 불승인합니다. 법원에 가서야 규범적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해조사 단계부터 대법원이 일관되게 설명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달라진 점과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요.

위험성평가가 자리를 잡고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게 된 것은 법 제정 이전과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입된 사회적 비용이 정작 위험이 집중된 사업장의 산재 예방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안전 비용의 상당 부분을 법률비용으로 지출하고, 의무를 이행했다는 서류만 갖추면 사고가 나도 다투어 볼 수 있으니 예방보다 서류에 힘을 쏟게 됩니다. 결국 대형 로펌의 수익만 늘었을 뿐, 정작 돈이 쓰여야 할 곳에는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양형기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실형 선고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3월에는 부산지법의 항소심 재판부가 하청 노동자가 숨진 부산 1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원청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첫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한노보연에 아쉬운 점과 든든한 점을 듣고 싶어요.

지역에서 새로운 노동안전 활동가가 충원되지 않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 바탕에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부산·울산·경남을 떠나는 현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지역의 일자리 정책, 수도권 일극 체제 문제에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든든한 점이 더 많습니다. 한노보연 모임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오랜 고민을 안고 활동하는 젊은 여성 동지들을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힘이 됩니다. 한노보연이 부산에서 계속 의지할



▲ 사진 : 조애진

곳으로 남아, 젊은 동지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노보연이나 노동안전보건운동에 제안해 보고 싶은 사업이나 방향이 있을까요.

최근 민주노총이 원청교섭 돌파를 내걸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청 구조는 노동안전보건운동 안에서의 연대마저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구조의 해소가 운동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부산 초읍의 한 카페 한쪽에 3단 와인냉장고가 있었다. 조애진 회원이 이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3층 와인은 허리 한 번 굽히지 않고 꺼낼 수 있지만, 2층 와인은 허리를 숙여야 하고 1층 와인은 무릎을 꿇어야 꺼낼 수 있습니다. 판정위원회에서 작업 영상을 보다 보면 같은 현장에서도 이 냉장고처럼 1층, 2층, 3층으로 나뉘어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게 되고,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가 위험이 뻔히 보이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파견이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더 힘든 일을 하는데도 산재 승인 사건들을 보면 원청 소속 노동자들의 입증이 월등히 쉽고 인정 비율도 높다는 역설입니다.

사람은 어느 일자리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데, 원청과 하청 사이의 임금 격차가 주거와 소비의 격차로 이어지고, 준거집단도,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연대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회원 동지들께서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 망막에 구멍이 나는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활자를 보고, 서면을 작성하는 일이 많이 힘듭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송무나 자문처럼 글자를 봐야 하는 일에서 잠시 떠나, 유기된 동물들이 반려가족을 찾거나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돌보는 일에 종사하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일터